

지역간 공생발전의 길

-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-

2012. 2.



/대/통/령/직/속/

지역발전위원회

목 차

- I 지역발전정책의 발자취
- II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
- III 2012년, 발로 뛰는 지역발전위원회



지역발전정책의 발자취

개발년대('60~'80년대): 산업화, 도시화

- ① 지방에 산업단지, 도로 · 항만 등 SOC 건설

국가발전정책 ➡ 지역발전정책



세계화시대('90년대~)

- ① IT,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

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



참여정부 : 균형발전

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

- ④ 세종시, 혁신도시(10개) 건설

각종 국책사업의 입지공모제도 시행

- ④ 태권도공원('04),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('07), 로봇랜드('07) 등



수도권과 비수도권간, 지자체간
경쟁 심화 → 갈등 유발



프랑스 : 지역정책의 대전환

- ① '60년대 이후 수도권(파리) 기능의 지방분산 추진
⇒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및 파리경쟁력 동시 저하
- ② 2000년대 : 분권정책, 광역권정책으로 대전환
 - 헌법 개정('03년): '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' 는
문구 추가(헌법 제1조)
 - 22개 광역경제권 → 6개 광역경제권으로 권역규모 확대



‘그랑 파리(Grand Paris)’ 정책 추진
→ 파리권 경쟁력 제고 도모





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

5+2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

- ④ 권역내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산어촌이 하나의 편대 형성
 - ④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협력을 통해 “함께 잘 살아보자”
- **지역의 특성화와 지역간 협력 기반 마련**



원칙에 입각한 국책사업 입지 결정

- ④ LH공사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

→ **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진정 국면**



제1기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('08~'10년)

5+2 광역경제권 정책 입안 및 구체화

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추진 : 이전계획 확정 등

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,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

※ 선도전략산업,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으로 개편



광역경제권 발전기반 마련

제2기 지역발전위원회와 노력 (11.4월~)

중앙 · 지역간
메신저

지자체
특성화

지자체간
연계협력

1박2일 현장토론회 등

지역발전정책의 뿌리내리기

'11년 지역과의 소통 활동

현장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(54회)

- 특화자원 활용, 도시권 활력 증진, 귀촌 활성화 등

지역언론과의 대화

- 인터뷰, 기고등(46회): 정부의 지역발전 노력 설명
- 신문·방송광고(83회): 정책의 핵심키워드 알리기



일반주민 등 정책고객과의 직접 대면

- SNS(트위터)를 통한 실시간 소통도 도입

* 팔로워 3.5만명 ('12. 1월말 현재)



'11년 지역과의 소통 활동(사례 1)

강원 접경권토론회('11.11, 양구)

- ①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 등 5개군
- ② 접경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협력방안



“장관급 인사가
산골까지 내려와 1박 2일 머물면서
함께 고민하는 것은 처음이다”



양구군수



'11년 지역과의 소통 활동(사례 2)

충청 북부권세미나('11.12, 제천)

- 충주, 제천, 단양 등 3개 시·군
- 중원문화권 문화관광 연계방안



“충주, 제천, 단양 3개 지역이
이웃하면서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
처음 만났다”



제천시의회 의장

“중원문화권 중심 지자체간 협력 필요”



충북 북부권 지역발전 대토론회

충주·제천·단양 등 충북북부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중원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21일 오후 2시 제천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북부권 지역발전 대토론회에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과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필요성을 역설했다.

원 위원은 “중원문화권은 동서해안 경제지대가 연결되는 지역의 발전 속으로서 국토의 중심부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적 위상의 특징이 존재한다”며 “신시대를 대비한 경쟁지대가 연결되는 지역의 발전 속으로서 국토의 중심부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적 위상의 특징이 존재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그는 “그럼에도 역사·자연의 지역간 통합·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취약하고 지역 특성이 존재한다”고 부연했다.

원 위원은 중원문화권이 소수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산업 기반의 관광개발의 추진을 위한 지역 전략계획의 수립과 문화·관광·관광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의 경쟁력 제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특히 광역 관광비전 및 방향을 한 시군 공유의 공간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지역의 권역이 아닌

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하고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주관한 북부권 발전 대토론회가 21일 제천시에서 개최됐다.

광역권 단위의 자발적 협력 분위기 조성

- **대경권** : 대구·경북 경제통합 선언('06) 및 침복단지 공동 추진('09)
- **호남권** : 8개 시·군, '영산강 히스토리 투어' 사업 추진('11. 1)
- **충청권** : 충청권 경제포럼 창립('11. 6)
- **동남권** : 동남권 100년포럼 창립('11. 7)
- **수도권** :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 공동사용 협약('11. 12)
- ◎ 대전·대구·광주 ➡ **내륙권 R&D 삼각벨트** 구축 협의('11. 9)



광역경제권의 가시화

시·군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

- 대전과 인근 8개 시·군: 대전충청권 G9협의회
- 여수, 광양, 진주, 하동 등 9개 시·군: 남중권 발전협의회
- 안동, 영주, 문경, 울진 등 10개 시·군: 경북북부권 발전협의회
- 제천, 단양, 평창, 봉화 등 6개 시·군: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
- 남원, 장수, 산청, 함양 등 7개 시·군: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



뭉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

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

청송·영양·봉화·영월 공동으로 '외씨버선길' 조성

④ '11년 11.7만명 방문(121km 개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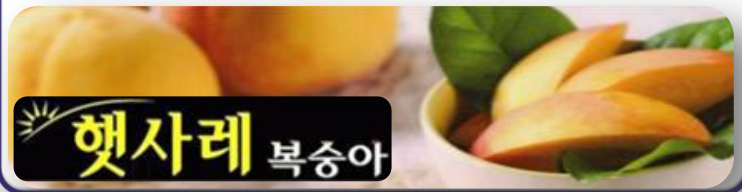
부여·공주 백제문화제 공동개최

④ 분리 개최보다 40여만명 관광객 증가



음성·아천 복숭아 공동브랜드개발

④ '11년 농식품부 파워브랜드 1위



함께 일하면 더 잘 할 수 있다



2012년, 발로 뛰는 지역발전위원회

지역과의 소통 강화

정책 최일선 현장과의 **쌍방향 소통**

- 일자리 창출 등 정책과제 논의를 위해 1박2일 현장토론회 등 확충

대상별로 **차별화된 소통**

- 지역언론 : 정책세미나, 워크숍
- 여론주도층 : 학회 공동세미나, 자문위원 포럼
- 일반주민 : SNS 활용, 정책 아이디어 공모



‘지역위는 현장 근무중’

‘지역상생발전포럼’ 구성·운영

- ◎ 대학, 연구기관, 시민단체, 기업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
- ◎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**국가적 관점**에서 협력방안 논의
- ◎ 지역간 **소통 및 합의 도출**의 구심점 역할



소통을 체계화, 공생발전의 공감대 확산

지역의견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

① 지역발전위원회내 분야별 특별위를 최대한 활용

➡ 지자체간, 관련부처간 협의 · 조정 강화

* 지역산업, 귀농귀촌, 도시활력 등 7개 특별위 운영중

② 정책 반영결과는 해당 지역 · 주민에게 통보



현장의 목소리를 반영, 정책체감도 제고

발로 뛰는 지역발전위원회

수도권

지방

화합과 협력

더불어 잘사는공생발전

도시

농산어촌

더 많은
일자리 창출

살기 좋은
지역 만들기

감사합니다



/대/통/령/직/속/

지역발전위원회